+

# 광주시, K-푸드·뷰티산업 글로벌 경쟁력 입증

지역 기업, 10개국 20개社 수출 상담 152건 100만달러 규모 업무협약 체결

광주지역 기업들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 담회에서 10개 국가 20개 사와 152건의 상담을 진 행해 100만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 결, K-푸드·K-뷰티 등 지역 유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광주시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8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해외바이어 단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수출상담회에는 로컬푸드를 간편식으로 가공 ·제조하는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수 출상담 152건, 100만달러 상당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수출상담회에서는 화장품·미용제품, 식품, 생 활소비재, 의료기기, 헬스케어 분야 제품을 생산 하는 광주지역 40개 업체가 참여했다.

광주지역 업체는 미국, 카자흐스탄, 일본, 튀 르키예,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인도네시아 10개 국가에서 초청된 20개 사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152건의 활발한 수 출상담을 했다.

지역 내에서 로컬푸드를 간편식으로 제조·가 공하는 기업인 ㈜태현푸드는 말레이시아 유통 바이어 '코르마라 앤 에스이엔 비에이치디'와 30 만달러 상당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 및 푸드테크 전문기업인 ㈜파도타 다는 카자흐스탄 바이어 '콜라겐\_카자'와 40만 달러 규모 업무협약을 맺었다.

뷰티 분야에서는 피부 각질케어 제품 제조 기업인 ㈜하경코스메틱이 튀르키예 바이어 '리 모니안 터키'와 30만달러 업무협약을 체결했

태국 바이어 차메 코퍼레이션 피씨엘은 현지

상장기업으로서 건강기능식품 OEM 및 프리미 엄 다이어트 제품을 유통하고 있으며 광주의 건 강보조식품 제조기업들과 협력 가능성을 타진

말레이시아 바이어 부스테드 헤비 인더스트 리즈는 현지 방산설비 유지 보수 및 산업장비 유 통기업으로 기계부품·전기·플랜트 설비 분야의 업체를 만나는 등 다양한 전문 업종 바이어들도 다수 입국해 관심을 모았다.

이 밖에 카자흐스탄・일본・베트남 등 다수의 식품·뷰티 전문 바이어들이 광주 기업의 현지 진출 의사를 적극 표명해 상담 현장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논의로 활기를 띠었다.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은 "올해 상담회는 아세안과 중앙아시아는 물 론, 미주 시장까지 포함해 광주 기업의 글로벌 판로 다변화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행사였다" 며 "K-푸드, K-뷰티 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광주의 유망한 K-브 랜드 제품과 해외바이어 교류를 통한 지역 수출기 업의 해외 진출 확대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 '2025 광주메디뷰티산업전' 오늘 개막

내달 1일까지…68개 지역 기업 참가 115개사 293개 부스 최신 기술 선봬

광주시는 30일부터 11월1일까지 김대중컨벤 션센터에서 '2025 광주메디뷰티산업전'을 개최

'메디뷰티산업전'은 호남 유일의 의료·건강관 리(헬스케어)·미용(뷰티)산업 종합 박람회로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한다.

올해는 115개 업체가 참여해 293개 부스 규모 로 최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 · 홍보한다.

전시장은 의료뷰티산업 공동관, 세미나존, 메 디뷰티 스테이지, 뷰티체험존, 달빛동맹관 등 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핵심 전시 공간인 '의료뷰 티산업 공동관'은 광의료, 병원 중심 인공지능

(AI), 생체재료, 고령친화, 정형외과, 치과, 치 매, 마이크로 의료로봇, 화장품 등 9개 주제로 구성돼 지역 68개 기업과 함께 선진 의료 기술 과 제품을 선보인다.

'세미나존'과 '메디뷰티 스테이지'에서는 전 문성 높은 세미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지역 의료바이오 산학협력 활성화 세미나, 디 지털 치료제의 최신 동향 및 개발 스킬업, 구강 위생관리 세미나, 메이크업 시연(아티청담 함 경식 대표) 등이다.

시민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 련됐다. ▲기능성 화장품 체험 ▲체력왕 선발대 회 ▲맞춤형 운동 상담 ▲아로마·손톱 관리(네 일아트) 체험 ▲건강 측정 및 온열마사지 ▲심 폐소생술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경품 이벤트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변은진 기자



'10·29참사'기억식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두번째부터)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 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1면 '관세협상 타결'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 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 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 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리 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 받을수있도록결단해달라"고요청했다.

그러면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 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 용해 주면 우리가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미 지지해 준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 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의제와 관련해서 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 면 자신이 조력하겠다는 '페이스메이커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광주시장·전남지사 "이태원 참사 기억할 것"

姜시장, 3주기 기억식 참석 추모 金지사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강기정 시장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 린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 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억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유가족, 시민단체,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주관 이태원참사 공 식 추모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 시장은 "광주는 이태원참사를 결코 잊지

않았으며 가장 먼저 '사망자' 대신 '참사 희생 자'라는 올바른 명칭을 사용하며 사회적 애도 의 출발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가족의 고통을 함께 품고 생명 과 안전의 가치를 지키는 도시 광주가 되겠다" 며 "이태원참사는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아픔이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 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 해 "하늘의 별이 되신 백쉰아홉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슴 깊이 추모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아직도 그날의 참사를 잊을 수가 없다.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허망하 게 희생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국 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또 되물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최고권력이 컨트롤타워 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 날 수 있는지 말해주는 참사의 전형이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문 는 투명한 절차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분 들의 염원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 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이태원참사 문제의 해결이 전환점이 돼야 한 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와 자치구 등 지역 공공기관은 이 날 청사 국기게양대에 조기를 걸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전남도도 청사 국기게양대와 22개 시 ·군기를 조기로 걸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광양시 공고 제2025-2468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위한 공람 공고

광양시 도이동 일원에 광양시 고시 제2019-212호(2019.09.05.), 제2022-276호(2022.08.31.), 제2023-123호(2023.04.12.)로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해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광 양 시 장

1. 위 치: 광양시 도이동 일원(대화마을 ~ 골약중학교)

2. 제한면적: 317,773㎡ 3. 해 제 일: 2025. 11. 19.

4. 해제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의거 개발 행위허가 제한 기간 만료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전라남도 고시 제2025-354)에 따른 효력 상실

5. 관계도서: 계재 생략

6. 열람장소: 광양시청 산단택지과

7. 열람 및 의견제츨 기간: 2025. 10. 29.(수) ~ 2025. 11. 14.(금) (17일 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산단택지과(☎061-797-3431)로 문의하시기

###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3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8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임 대 B A√S

T.375-5880

### [감정가 이하]

○ 감정가6억2,000 == 급매4억1,000 임동5거리 대로변8층135평(바로입주가능) [시세반값 급매물]



- 백운광장 대로변코너 상업지289평(분할가능)평당1,600
- 법원앞 대로변코너 전철역입구예정지 대지283평 평당1,200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순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

###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시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쌍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